현장 일기

"바람개비 인형"에 얽힌 사연

쌍미실업주식회사
의무실 **정 미 경**

나의 의무실 한 구석에 눈에 띄는 바람개비 인형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누구일까?

어느날 바람개비 인형 한쌍과 의문의 편지가 나의 책상위에 놓여있었다. 궁금함으로 편지를 읽어 보니 "언니를 좋아하는 아이로부터 "라고 쓰여 있었다. 결국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후 그 깜찍한 범인을 밝힐 수 있었다.

그녀는 현장에 근무하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밝은 미소의 소녀였다. 맡은 부분의 업무가 계속 서서 근무하는 곳이고 인원의 배치도 꽉 짜여 있는 상태이어서 관절을 쉴 수가 없을 뿐더러 오래전부터 무릎 관절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가 보다.

하지만 시골집에 돈을 부쳐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의무실 문을 노크하여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지정병원이 정형외과였으므로 보건관리자인 그곳 원장님과 상의하여 얼마간의 치료를 받고 장기 약복용이 필요했으므로 거래하는 약품회사를 중계로 저렴하게 약구입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현재는 약간의 동통과 부종이 감소되었으나 타직원에게 맡은 업무의 이양이 어려운 상황의 부서이므로 그 부서의 관리자와의 의논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항상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와 의논해 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주며 무릎이 아파도 밝은 미소로 점심시간이 되면 배구를 즐기는 그 소녀.

배구를 하지말고 좀 쉬라는 나의 말에 "언니, 나는 너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후 다리가 더 아픈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하곤 한다. 정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가끔씩 느끼게 된다.

어서 그 부서에서나마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 수 있기를 오늘도 바라며 바람개비 인형을 보며 미소짓게 된다. 학교 다닐때는 임상간호만을 생각했던 내가 산업장 간호원으로서 근무하다 보니 임상과는 또 다른 멋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힘쓸때 그들은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의논의 대상으로 나를 꺼리낌없이 대한다는 것, 이런점에서 가끔씩 짜증이 날때도 있지만 나를 다시한번 다짐하며 오늘도 보람에 살고 있다.